

출루머신 추추트레인, 타격까지 정상궤도



▶ SSG 추신수는 올 시즌 초반 KBO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5월 이후 특유의 '눈아구'를 앞세워 팀 타선에 힘을 불어넣었다. 어느덧 타격감도 상승세로 반전했다. 스포츠동아DB

눈과 발 꾸준함 과시...순출루율 0.159 역대급 최근 16경기서 타율 0.417...타격감까지 부활 역대 최고령 20홀런-20도루 클럽 가입 도전장

아무리 현대야구에서 출루율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타율은 유지할 때의 이야기다. '눈'만큼은 확실했지만 방향을 향한 아쉬움이 점차 고개를 들 때쯤, 추신수(39·SSG 랜더스)가 감을 잡기 시작했다. 눈도, 발도 여전한 추신수가 이제는 배팅까지 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추신수는 7일까지 팀이 치른 50경기 중 48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8(164타수 44안타), 8홀런, 2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78을 기록했다. 규정타석을 채운 57명의 타자들 중 타율은 40위에 불과하지만 출루율 5위, 홀런 공동 12위에 올라있다. '눈아구'의 힘으로 OPS도 14위에 랭크되었다. 조정득점생산(wRC+)은 142.7에 달한다. wRC+는 리그 평균을 100으로 상정하는 지표다. 불혹의 추신수가 여전히 리그 평균보다 40% 이상 뛰어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다. 어떤 지표로 살펴봐도 리그 전체 10위권대의 퍼포먼스. 이제 막 상승궤도에 진입한 선수임을 고려하면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다.

추신수는 5월 14일 인천 두산 베어스전까지 33경기에서 타율 0.207에 그쳤다. 당시 규정타석 타자 52명 중 타율은 49위. 하지만 이후 반등이 시작됐다. 5월 17일 인천 두산전을 시작으로 16경기에서 타율은 0.417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강백호(KT 위즈·0.448)에 이어 타율 2위다. 이 기간 출루율은 0.569(1위)에 이른다. 타석에 두 번 들어서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출루하고 있다는 의미다.

순출루율(출루율-장타율)은 0.159로 '역대급'이다. 지난해까지 KBO리그 39년간 올해 추신수보다 높은 순출루율로 시즌을 마무리한 이는 2001년 펠릭스 호세(롯데 자이언츠·0.168),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해태 타이거즈·0.161), 1992년 김기태(쌍방울 레이더스·0.159)뿐이다. 지금처럼 타율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순출루율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일 터. 하지만 메이저리그(ML) 정상급으로 꼽혔던 눈은 달라진 스트라이크존에서도 슬럼프를 타지 않았다.

타율, 홀런, 출루율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지표라면 도루는 의외다. 이미 13도루로 리그 3위에 올라있다. 1위 김해성(키움 히어로즈·22개)과 차이가 적잖아 타이틀까지 노리긴 어렵겠지만,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39도루로 시즌을 마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친 김에 40도루까지 노려볼 수 있다. 추신수가 지금 흐름을 지켜 20홀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한다면 종전 2007년 양준혁(당시 38세4월10일)을 넘어 최고령 기록을 갖게 된다. 홀런과 도루 모두 여유 있게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ML에서도 손꼽히는 선수가 KBO리그에 온다면 어떤 활약을 보일까.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던 해답을 2021년 추신수가 증명하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이정후

5월 타율 0.451·37안타로 1위 키움 이정후 데뷔 첫 월간 MVP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생애 처음 월간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다.

KBO는 5월 MVP 기자단 및 팬 투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정후는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8표(56.3%), 팬 투표 32만6702표 중 18만1714표(55.6%)로 총점 55.94점을 얻어 25.81점으로 2위에 오른 강백호(23·KT 위즈)를 제쳤다.

이정후는 5월 22경기에서 타율 0.451(1위), 37안타(1위), 출루율 0.525(2위), 21득점(공동 2위), 장타율 0.695(4위)를 기록하며 대부분의 타격지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절반이 넘는 12경기에서 멀티히트를 때렸고, 그 중 5차례는 3안타 이상 경기였다. 5월 1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개인 한 경기 최다타인 5타점을 올리기도 했다.

키움에도 경사다. 벡스에서 키움으로 이름을 바꾼 2019년 이후 첫 번째 월간 MVP 배출이다. 히어로즈 소속으로는 2018년 8월 박병호에 이어 약 3년만이다. 키움은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5월 한 달간 14승9패를 거두며 상위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버지 이종범(LG 트윈스 퓨처스 타격코치)도 월간 MVP 수상 이력은 없다. KBO 월간 MVP는 매년 진행된 행사가 아니다. 이 코치의 현역 시절 중에는 2005, 2010, 2011년에만 진행됐는데 당시 수상하지 못했다.

이정후에게는 상급 200만 원과 함께 75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카드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또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이정후의 모교 휘문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최익래 기자

KBO, 올스타 후보 120명 발표 팬투표 100%로 베스트12 선정

14일부터 26일간 신한SOL 앱 등에서 투표 가능

프로야구 '별들의 축제'에 나설 후보들이 공개됐다. KBO는 7일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베스트 12' 후보 120명을 발표했다. 올해 올스타전은 7월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며, 드림올스타(두산 베어스·KT 위즈·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SSG 랜더스)와 나눔올스타(NC 다이노스·LG 트윈스·키움 히어로즈·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로 팀을 나눈다.

KBO는 각 구단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 선수 120명을 대상으로 팬 투표를 거쳐 양 팀의 '베스트 12' 총 24명을 선정한다. 투수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의 3명으로 구분해 뽑으며, 포수와 지명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부문은 각 1명, 외야수 부문은 3명을 선정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올해 KBO리그에 입성한 추신수(SSG)도 당당히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별들의 축제'에 나설 기회를 얻었다.

올해 투표는 선수단 투표 없이 100% 팬 투표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수단과 동선분리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서다.

팬 투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7월 9일 오후 6시까지 26일간 진행된다. KBO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SOL(솔) 앱,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을 통해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각 투표처에서 1일 1회씩 총 3회 참여할 수 있으며, KBO는 투표기간 중 매주 월요일 모든 팬 투표수를 합산해 3차례 중간집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산 기자

서튼호, 위기에서 만들어낸 첫 '위닝 워크'

롯데, 키움·KT 3연전서 위닝시리즈 주전 이탈 불구 건강한 경쟁 판 짜야

대부분의 감독들은 주간승률 5할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꾸준히 3승3패를 기록하다 상승세를 탔을 때 장기 연승으로 승패의 마진을 확 늘리며 도약하는 게 이상적이다.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는 주간승률 5할, 그리고 이를 넘어선 '위닝 워크'가 멀게만 보였다. 래리 서튼 감독 부임 후 첫 위닝 워크. 아이러니하게도 난세에 만들어낸 성과다.

롯데는 1일부터 고척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 4일부터 수원에서 KT 위즈와 주말 3연전을 치러 잇달아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서튼 감독 체제 첫 위닝시리즈를 기록한 직후 상승세를 타 2연승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6일 KT전에선 8회말까지 2-7로 밀렸으나 9회초 5득점으로 균형을 맞췄고, 10회초 정훈의 결승타로 승리를 챙겼다.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4승2패, 소기의 목표 이상을 달성하며 당장 급한 탈 썰매에도 한 걸음 다가갔다.

롯데의 마지막 위닝 워크는 허문회 감독 시절이던 4월 20~25일로, 당시 두산 베어스와 KT를 상대로 연속 위닝시리즈를 거

뒀다. 최하위에 처지며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1무4패로 자존심까지 구긴 바 있다. 그러나 한 주 만에 분위기를 바꿨다.

'간판' 이대호가 5월 중순 이탈한 데 이어 6월 시작과 동시에 안치홍이 무릎 부상으로 빠졌다. 하지만 지난주 추재현이 타율 0.292, 강로한이 타율 0.333에 2홀런으로 활약했다. 시즌 초 커리어 최악의 슬럼프를 겪었던 손아섭도 조금씩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디슨 마차도 역시 1번타순에서 공격적병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투수 최고참' 노경은은 5일 KT전에 선발등판해 조기강판당하며 클러브를 던졌다. 서튼 감독은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야구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다. 롯데는 서튼 감독 체제에서 유망주들을 적극 기용 중이다. 지금까지의 주전이 앞으로로도 주전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스타는 언제나 난세에 등장한다. 주전의 요건은 커리어, 팀 내 영향력이 아닌 기량이다. 모두가 최상의 기량으로 건강한 경쟁을 펼칠 때 도약도 가능하다. 일단 그 판은 깔렸다.

최익래 기자

SSG, 키움서 방출된 우완 사이드암 신재영 영입

SSG 랜더스는 7일 "신인왕 출신 우완 사이드암 투수 신재영(32)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히어로즈에서 15승7패, 평균자책점(ERA) 3.90을 거두며 신인왕을 차지했던 신재영은 지난해 7경기에만 등판한 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독립리그 시흥 올브스에서 뛰며 프로의 부름을 기다렸고, 선발전에 구멍이 생긴 SSG가 손을



신재영

내밀었다. SSG 관계자는 "선발진 팀스 강화를 위한 영입"이라고 밝혔고, 신재영은 "어떤 보직이든 팀에 반드시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재영의 통산 성적은 109경기에서 30승23패1세이브3홀드, ERA 4.84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김하성, 뉴욕 메츠전 3타수 1안타...타율 0.203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6)이 2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7일(한국시간) 팻코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서 7번타자 3루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로써 4일 메츠전(3타수 1안타) 이후 2경기 만에 안타를 뽑은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00에서 0.203(143타수 29안타)으로 약간 올랐다.

2회말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0-2로 뒤진 4회말 1사·2루에서 메츠 선발투수 마커스 스트로먼의 초구 싱커를 공략해 우전안타로 연결했다. 그



김하성

러나 2루주자 에릭 호스머가 3루에 멈추면서 타점과 연결되지 않았다. 후속타자 웨스터 리바스의 병살타로 득점에도 실패했다. 6회말 3번째 타석에서 3루수 망볼에 그친 김하성은 7회초 수비에서 호르헤 마테오로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2-6으로 저 2연패에 빠진 샌디에이고(36승25패)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37승22패)에 2경기차 뒤진 2위를 유지했다.

강산 기자